

보안사, 5·18 사진 1769장 공개한다 광주일보 기자들에 압수한 사진 포함

사진첩 13권 ... 5·18 40주년 앞두고 진상규명 큰 도움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80년 5·18 민주화운동 사진을 모은 사진첩 13권(사진1769매)을 공개하기로 14일 결정했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오늘 오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를 열어 구(舊)기무사령부가 2018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 사진첩 13권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내년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진상규명을 위한 분위기가 조성에 큰 계기가 마련됐

다”고 밝혔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사진첩은 1980년 5월 항쟁 당시 보안사에서 광주시민 및 계엄군의 활동을 채증한 것이며 일부는 광주일보(옛 전남일보·전남매일) 등 현장 취재기자들에게 압수한 사진들로 알려졌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지난 2017년 5월 18일 대통령 지시사항 8630호(5·18 관련 자료 폐기와 역사왜곡을 막을 것)에 따라 2018년 7월 국가기록원에 그동안 보관

해왔던 자료를 이관한 바 있다. 하지만 이관 당시 ‘5·18 진상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시 공개’할 것을 요청, 공개되지 못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가기록원에 80년 당시 보안사의 사진첩이 이관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낸 박 의원은 “해당 사진들이 즉시 공개되어야 5·18 진상 규명에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공개를 촉구해 왔다”며 “이를 계기로 검찰, 국정원 등에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5·18 자료들의 공개도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수능 끝났다!” 14일 광주 남구 동아여자고등학교에서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밝은 표정으로 시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내년 총선 앞두고 정계개편 흐름 구체화

호남 정치권 움직임 ‘주목’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계개편의 흐름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호남 정치권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중도·개혁 성향의 제3지대 신당 창당의 성공 여부가 전체적인 총선 판을 뒤엎을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제3지대 신당의 폭발력이 지난 총선 국민의당 바람에 견주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인물론’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경쟁 구도는 형성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이 5개월이나 남은데다 정치적 유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계개편 결과에 따라 ‘보수대통합 대 진보대통합’ 구도는 물론 제3지대 신당 돌풍 등 총선 판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선 정치권의 정계개편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는 흐름이지만 아직 폭발력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정계개편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밀당이 진행 중인 형국이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 비주류 진영과 ‘보수대통합’을 노리고 있지만 실질적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보수통합 움직임이 구체화돼야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중도·개혁 성향 야권의 제3지대 신당 창당도 급류를 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의당에서 분열한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대안신당(가칭), 민주평화당 등도 제3지대 신당 창당을 통해 정치적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당장 손학규 대표와 당내 호남 중진들 중심으로 하는 바른미래당 당권파는 비주류 진영의 탈당이 이뤄지는 대로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위한 ‘원탁회의’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적 색채를 뛰어넘고 민심의 눈높이에 맞는 외부 인사 영입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또, 대안신당과 평화당과의 통합 등을 통해 당

권을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안신당도 같은 목표다. 일단 창당을 한 후에 바른미래당, 평화당과의 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대안신당은 17일 개최하는 발기인 대회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에 초대장을 보냈다. 평화당도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는 제3지대 신당 창당에 함께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반적인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수도권 전선 등을 고려한다면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제3지대 신당 출범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견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선별 입

당 카드’를 주목하고 있다. 경쟁력을 갖춘 호남 야당 의원들을 영입, 제3지대 신당 창당의 근원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최근 무소속 손금주 의원의 민주당 입당 신청이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또 무소속 정인화, 이용주 의원이 대안신당 참여에서 발을 뺀 것도 이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가능성은 낮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위기에 몰릴 경우, 제3지대 신당과의 연대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제3지대 신당과의 경쟁 구도가 성립된다면 민주당은 기존 지역위원장 중심의 기득권 구도에서 벗어나 민심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인물들을 전격적으로 투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정국가화가 마무리되는 내년 중순부터 정계개편이 급류를 타면서 내년 1월 중순이나 2월 초에 제3지대 신당 창당이 이뤄지는 등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민주당 강세 국면이지만 정계가 어려운데다 보수대통합과 제3지대 신당 등의 정치적 유동성이 크다”며 “특히, 호남 민심은 정계개편의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히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수능, 지난해보다 쉬워 ... 국어·수학 변별력 충분

영어는 평이하게 출제

18일까지 문제·정답 이의신청

14일 치러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국·영·수 영역 모두 ‘불수능’이라 불렸던 지난해보다는 쉽게 출제됐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지난해 수능이 워낙 어려웠던 탓에 다소 쉽게 느껴질 뿐, 국어와 수학은 변별력을 갖춰 수험생들이 문제풀이에 다소 곤란을 겪었을 것으로 분석됐다.

〈관련기사 6·7면〉 영어는 평이하게 출제되면서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통과하는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소폭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에 따라 정시를 선택하는 수험생의 비율 역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1등급 구분 점수는 어려웠던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해 국어는 89점, 수학 가형과 나형은 각각 90점 초반, 80점 후반에 형성될 것이라 전망이 광주 교사들로부터 나왔다. 절대평가 체제인 영어의 경우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 인원 비율은 지난해 수능(5.3%)보다 높고, 올 6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7.7%대로 예

측했다.

‘불수능’을 유발했던 국어는 전년보다 쉬웠지만 변별력은 충분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독서 영역 문항이 전반적으로 어려웠고, 비문학 지문 중 경제 지문이 생소해 수험생이 느끼는 체감적인 난도는 다소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룬다.

수학 가형은 작년과 비슷하게 출제됐지만, 최고난도 문항을 제외하고는 1~2개 문항이 어려웠던 전반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풀이하기 쉬운 문항이 주를 이뤘다. 수학 나형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최고난도 문항을 제외한 일부 문항은 개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해결되는 등 체감 난도는 다소 높았던 것으로 예측된다.

영어는 지난해에 비해 비교적 평이한 수준으로, 최고난도 문항 역시 평이했다

는 개 수험생과 교사들의 전언이다. 1~2개 문항을 제외하면 시간 내에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필수과목인 한국사 영역은 역사적 사실과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 다소 출제돼 다소 어려웠고, 사회탐구 영역은 과목별 차이는 있으나 지난해와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탐구는 화학과 생명과학의 경우 다소 평이했으나, 지구과학과 물리는 생소한 문제가 출제돼 체감 난도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이 끝난 직후부터 오는 18일까지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을 받아 25일 정답을 확정·발표한다. 수능 성적은 다음 달 4일 수험생에게 통보된다.

/박기용 기자 pbboxer@kwangju.co.kr

선거법 통과시 통폐합 지역구는? ▶3면

김병원 농협 중앙회장 인터뷰 ▶5면

KIA 윌리엄스 감독 내년 시즌 밀그림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대한민국대표종합여행기업

롯데관광

LOTTE TOUR

대표전화 1577-3000
광주지사 1688-1104

JEJUair
제주항공과 함께하는
무안 출발

하이난&괌 신규취항 기념
특별할인 혜택!
5% 할인
- 11/8일까지 예약시 - 단, 현금결제 조건
- 하이난 풍력, 괌 정통 상품만 적용가능

신규 취항

가족추천여행

괌

▶12/24,25,26,27,28,29 1/1,2~ 매일출발
정통 괌(성인2+소아2 패밀리특가) **JEJUair 4일**
669,000부터 [+US\$30(성인), \$10(소아)] 선택관광 있음
☑ 무안/괌(3)/무안 **PIC리조트 3박(워터파크 및 부대시설 이용)**
☑ 자유시간/호텔 내 부대시설, 현지 픽업 신청시 2일차 시내(스페인 광장, 사랑의 절벽, 파세오 공원),왕복항공료 및 각종 TAX, 호텔(PIC리조트-슈퍼리어룸 기준), 여행자보험 1억원, 전일정 호텔식(골드카드, 환타지디너쇼-현장예약 필수)

▶12/24,25,26,27,28,29 1/1,2,3,4~ 매일출발
정통 괌(공항->리조트 왕복픽업+아동반값) **JEJUair 4일**
1,089,000부터 선택관광 있음
☑ 무안/괌(3)/무안 **PIC리조트 3박(워터파크 및 부대시설 이용)**
☑ 공항->리조트 왕복픽업, 자유시간/호텔 내 부대시설, 스페인 광장, 사랑의 절벽, 파세오 공원, 왕복항공료 및 각종 TAX, 호텔(PIC리조트-슈퍼리어룸 기준), 여행자보험 1억원, 전일정 호텔식(골드카드, 환타지디너쇼-현장예약 필수)

신규 취항

동양의 하와이

하이난

▶11/9,13,16,20,23,27 12/4,7,11,14~ 매주 수(5일), 토(6일)출발
알뜰 하이난(싼아) **JEJUair 5/6일**
199,000부터 [+US\$40(5일), \$50(6일)] 선택관광 있음
☑ 무안/하이난(3/4)/기내박/무안
☑ 전 일정 준5성급 호텔(그랜드 매트루 파크 호텔or코니퍼 호텔)
☑ 자유시간/호텔 내 부대시설, 대동해 해변, 푸싱제+열대과일시장, 심아면제점(CDF), 왕복항공료 및 각종 TAX, 호텔, 식사, 차량, 가이드, 여행자보험 1억원

나를 위한 최고의 여행지 **다낭**

다낭/호이안 (4명이상 출발) **JEJUair 4일**
정통 549,000부터 [+US\$40 선택관광 있음] • 무안/다낭(3)/무안
▶11/11,13,14,15,16,17,18~ 매일출발
● 전 일정 **특급 호텔(반펠리버르프 호텔or동급)**, 1일 자유시간
• 바나나산 국립공원, 대성당, 까오다이고 사원, 내리고, 편가사당, 풍동 의집, 광조화관 등, 전통마사지 1시간, 투분강 보트투어+호이안 박물관, ICE커피 1잔&열대과일 사식, 노니바나 1개(1인당) 제공 등

다낭/호이안/후에 (4명이상 출발) **JEJUair 4일**
알뜰 519,000부터 [+US\$40 선택관광 있음] • 무안/다낭(3)/무안
▶11/11,13,14,15,16,17,18~ 매일출발
● 전 일정 **준특급 호텔(다나시티 호텔or동급)**, 바나나산 국립공원
• 대성당, 까오다이고 사원, 내리고, 편가사당, 풍동 의집, 광조화관 등, 전통 마사지 1시간, 투분강 보트투어+호이안 박물관, ICE커피 1잔 & 열대과일, 노니바나 1개(1인당), 카이인 왕릉, 후에 왕궁(오로, 태화전, 자금선 등)

휴양천국 힐링여행지 코타키나발루

코타키나발루(초특급 리조트) **JEJUair 5일**
풍격 929,000부터 [+US\$30 선택관광 있음] • 무안/코타키나발루(3)/무안
▶11/7,14,21,28 12/5,12 [단, 6회 한정특가]
● 전 일정 **초특급 3박(탄둥루 리조트or동급)**
• 호핑투어(마무릭섬), 투아란 선셋반딧불 투어, 섀넌 나이트 투어, 비치 샌들, 비치백 중점, 코타키나발루 시내관광(제셀린포인트, 사바주청사, 이슬람사원), 현지식 BBQ, 스타보트, 비비방, 리조트 석식 1회 등, 섀넌 나이트 투어 진행시(선셋감상+아시안투어+코코넛음료) 시음

코타키나발루(준특급 호텔) **JEJUair 5일**
알뜰 479,000부터 [+US\$40 선택관광 있음] • 무안/코타키나발루(3)/무안
▶11/14,28 12/5,12,19,26~ 매주 목요일 출발
● 1일자유+시내관광+악시나이트투어, 링가트 호텔(준특급or동급)
• 아일랜드 호텔, 악식 나이트 투어, 라군파 섀넌보트, 시내관광(제셀린포인트, 사바주 청사, 이슬람사원), 현지식 BBQ, 스타보트, 현지

즐거자 휴양과 액티비티를 동시에 **세부**

세부(솔레이씨부리조트) **JEJUair 5일**
풍격 549,000부터 [+US\$40 선택관광 있음] • 무안/세부(3)/무안
▶11/12,19,26,30,12/3,4~ 매주 화,수,금,토요일 출발
● NO7시/가이드 경비&NO소풍&이동반값, 전 일정 5성급 리조트
• 호핑투어, 스노우사키 1시간, 열대과일시장, 체험다이어링 감상회, 레트코 코 민속공연 관람 및 디너, 코코넛 비누+드라이파랑+아로마오일, 스낵 바스켓, OFF로션, 막탄 아경감상, 베이비독림, 씨푸드 런치, 리조트 석식 1회, 세부 시내관광(산페트로 요새등) 등

세부(세미팩-소도그란드리조트) **JEJUair 5일**
알뜰 469,000부터 [+US\$40 선택관광 있음] • 무안/세부(3)/무안
▶11/12,19,26,30,12/3,4~ 매주 화,수,금,토요일 출발
● **공스타파스테이크+디스커버리투어, 준특급 호텔**
• 공스타 45분, 막탄디스커버리투어, 체험다이어링 감상, 세부 시내, 랑고 1KG+열대과일바나, 씨푸드 & 스테이크+모호리 1잔, 무제한 삼겹살

가성비 甲, 여행 최적기에 떠나는 대만

대만(화련/야류/지우펀) **JEJUair 4일**
풍격 899,000부터 선택관광 있음 • 무안/타이베이(3)/무안
▶11/12,13,15,16,19,20~ 매주 화,수,금,토요일 출발
● NO7시/가이드동행, NO소풍, NO음선
● 전 일정 **특급(신타이베이 푸신 호텔or동급)**, 대표 관광지(지우펀, 야류 해상공원, 고궁박물관, 스핀 천동제함-4인차, 황금박물관 금만지기, 총혈사 등), 10타워 전망대, 화련국립공원, 전신마사지 1시간, 대만의 유명 먹거리(다우바 사브사브, 덤싱 레스토랑, 삼형제, 광둥도시락) 등

대만(화련/야류/지우펀) **JEJUair 4일**
정통 579,000부터 [+US\$40 선택관광 있음] • 무안/타이베이(3)/무안
▶11/12,13,15,16,19,20~ 매주 화,수,금,토요일 출발
● 전 일정 **준특급 호텔(타이베이 인하우스 호텔or 동급)**
• 지우펀, 야류 해상공원, 고궁박물관, 스핀 천동, 총혈사, 화련국립공원, 대만의 유명 먹거리(덤싱 레스토랑, 몽골리안BBQ) 등

가경호택배 크루즈 선실로 및 항공세, 식사요금 등 필수 경비 모두 포함 **가이드/가사경비** [주] 부분은 현지에서 지출해야 하는 기사/가이드 경비(일일제)에 대한 사항 및 일정표는 홈페이지 www.lottetour.com 참고) [인전경비단계] ●여행유리/●여행지제/●청수권고/●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비지] 필요로 하는 일부 선택경비(관광) 있음/없음 상용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관광 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이 선택 시 대체할 등 자세한 사항은 롯데관광 홈페이지 www.lottetour.com 참고

여행경비는 여행객 가산비용으로 인입금입니다. ●종로구청 : 일반여행업 제478호(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롯데관광개발주) ●일반여행업 영업보증보험 10억원 가입 ●기타여행 상시에 따른 보증보험 5억원 가입 ●여행물품손해보험 : 1589-8892 ●여행물품지 : 부산항/속초항 ●최소출발 10명 ●크루즈 2인 1실 사용(일부박제 제외) ●교통편 : 항공, 버스, 크루즈(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공기, 열차, 잠정, 숙박권 등은 판매국정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